
발표 2

일본의 우루시 옷칠: 문화유산의 복원과 우루시 생산 현황

유지 요네하라

(교토 세이카대학 전통산업혁신센터장)

1 유지 오테하라라는 저널리스트이자 일본 전통공예분야 전문 작가이며 교토 세이카대학교 전통 산업 혁신센터장이다. (이메일: yonehara@kyoto-seika.ac.jp)

2 키오네 아카오 코치는 공예가이자 교토 세이카대학교 전통산업 혁신센터 연구 코디네이터이다. (이메일: Kione@kyoto-seika.ac.jp)

3 번역자 주석: 우루시(Urushii) - "우루시 옷"이라는 문구는 제목과 본문의 처음에만 언급하고, 이하 "우루시"라고만 쓴 말은 원료로서 일본 옷을 지칭할 때 사용하며 "우루시 나무" 혹은 "옷나무"는 식물을 언급하는 말로 사용한다. 일본 어에서 "우루시"는 식물과 그 식물에서 나온 옷 둘 다 가리키는 명사다.

4 번역자 주석: 생산지 혹은 생산지역은 지리적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우루시 완제품의 생산 그리고/혹은 원료로서 우루시 생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일본의 우루시 옷칠: 문화유산의 복원과 우루시 생산 현황

유지 오테하라¹⁾ (교토 세이카대학 전통산업혁신센터장)
번역: 키오네 아카오 코치²⁾

일본의 우루시³⁾ 옷

현재 일본에는 23개 지역이 우루시 옷 생산지⁴⁾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접시와 같은 일상생활용품을 만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우루시 생산지는 전국에 걸쳐 분포하며 지역환경과 생활방식에 맞추어 지역에 특화된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기법은 장인들에 의해 전승되어 왔다. 다른 한편, 우루시는 많은 전통건축물에도 사용된다. 건축에 적용되는 우루시의 생산지는 위에 언급한 23개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 수년 동안 100년이 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로 인정된 건축물의 수리와 보수에 우루시를 재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중요문화재를 보수하는 데에 우루시를 적용하는 현황을 정리하고 일본의 국내 옷산업과 생산지원체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루시와 중요문화재 보수(건축물)

2020년 12월 유네스코는 "일본 목조 건축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전통 기술, 기법 및 지식"이 무형 문화재로 대표목록에 등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전통적인 일본의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목재, 흙, 짚과 같은 자연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러한 구조물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와 보존에 사용되는 다양한 고도의 기술과 공간 활용을 둘러싼 문화적 지식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지정 대상에는 목공, 편백나무 껍질로 이은 지붕, 건축물에 우루시를 적용하는 일, 그리고 옷의 국내 생산과 정제과정 등 17종류의 기법이 포함되지만, 이들 기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5,033개(이 중 289개가 국보다)이다. 이들 건축물의 대부분은 사원, 신사, 성 등 목조건축이다. 1897년 고대 신사와 사찰보존법이 시행된 이래 7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시대별 중요 건축물이 국가지정을 받았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약 120년 동안 사회와 관련 기술과 지식의 지속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다. 중요문화재 보수방법에는 두 가지 중요한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향후 수백 년 동안 예측 가능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보수이며 다른 하나는 주기적인 보수이다. 지난 120년 동안 약 2,200개의 건물에 대한 구조적 보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우루시도 적용되었다.

목조건축에서 우루시의 주된 기능은 표면에 옷칠을 하여 보호하는 것이며 옷칠된 부분의 외관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식적인 측면도 있다. 독특한 화학성분으로 인해 우루시는 공기 중의 습기와 접촉하면 산화를 통해 습한 조건에서 더 단단하게 굳는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단단해진다. 일단 완전히 경화되면 벗겨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강해진다. 하지만 자외선에는 쉽게 손상된다. 따라서 주기적인 우루시의 재적용은, 특히 장기간의 유지 보수라는 맥락에서 야외 사용의 전제 조건이 된다.

2015년 일본 문화재청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루시를 향후 중요문화재 혹은 국보로 지정된 모든 건축물의 보수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발표 직후 중간 단계 옷칠(나카누리)과 최종 옷칠(우와누리)만 신규 결정 대상에 해당하였지만 2018년 이후에는 바탕 옷칠(시타지)을 포함하여 전 과정에 국산 우루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의도한 바였다. 이 결정은 중요문화재의 보수와 복원은 처음 건축될 당시 사용했던 기술과 재료를 활용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꾸준한 감소하고 있는 국산 우루시 생산을 늘리고 이전에 우루시 생산을 조정해 왔던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 선언 이후 일본 옷을 위한 향후 계획은 중요 문화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전의 우루시 생산지의 활성화 및 국내 생산 증가가 연동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자연환경과 국산 우루시

우루시를 수확하려면 옷나무의 껍질에 홈을 파서 그 “상처”에서 배어 나오는 수액을 채취한다. 이 과정은 우루시-카키(urushi-kaki, “옷 긁어내기”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일본 전역의 농촌에서 널리 행해졌다. 이는 6월에서 8월까지 한정된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수입원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농부들은 종종 부수입을 위해 농한기에 우루시를 수확하곤 했다. 사실 산간지역의 농민들은 농작물 재배 외에 우루시 수액받기, 임업, 축산, 누에치기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우루시 수액받기가 성행했던 지역에서는 농경지 주변에 우루시숲을 조성하였다. 그 열매 또한 전기가 보급되기 전 초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어 옷은 수익성이 좋은 작물이 되었다.

일본에서 우루시 수액을 얻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여름 한 철에 수액을 완전히 채취하고 나무를 베어 버리는 것이다. 이를 코로시-카키[koroshi-kaki, 코로수(korosu) 또는 “죽이기”라는 말에 나온 말]라고 한다. 우루시 한 그루가 수액을 채취할 만큼 성장하는 데에는 약 15년이 걸리며 나무 한 그루에서 받아낼 수 있는 우루시의 총량은 겨우 200ml 밖에 안된다. 2차대전 이후 이러한 적은 수확량은 토지 면적과 들이는 시간 그리고 (산간지역에 작업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투입되는 노동력에 비해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졌고, 직업으로서 우루시-카키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더구나 우루시 나무는 접촉하게 되면 가려운 발진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농촌이 점차 도시화하면서 재배에 적합한 지역도 감소하였다.

오늘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루시는 일본에서 소비되는 전체 양의 2%가 채 되지 않는다. 식기와 기타 일상용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옷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중요문화재에는 수입품을 더는 사

용할 수 없다. 일본의 우루시 산업은 앞서 언급한 중요문화재 보수에는 국산 옷만 사용해야 한다는 국가 정책과 국내 생산 증가의 어려움 사이에서 꾀박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루시 수액을 받는 독특한 방법 때문에 수입품과 국산 우루시 간의 차이는 명확했다. 그러나 해외 생산자들이 일본에 있는 우루시 정제공장과 제휴한 지 오래되어 최근의 수입 옷의 품질은 일본에서 생산된 우루시와 거의 같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루시-카키의 미래

오늘날 일본 내 우루시의 70% 이상이 이와테현의 니노헤시에서 생산된다. 니노헤에는 약 20명 정도가 우루시 카키를 하고 있다. 하지만 노령화와 전승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직업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테현 이외에 이바라키(국내 칠기 생산의 15%), 토치기(10%), 교토, 야마가타, 후쿠시마, 나가노, 오카야마 그리고 이시카와현과 같은 이전의 우루시 생산지역(모두 합하면 5%)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애초 우루시 카키는 종사하는 사람이 유일한 직업으로 삼을 만큼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했다. 오늘날, 새로운 우루시-카키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보충할 만한 농사일이나 다른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우루시 나무를 심을 땅을 확보해야 것도 큰 장애 요소다. 15년을 주기로 우루시나무를 베어내려면 새로운 우루시 숲을 조성해야 하는데 도시개발로 농경지는 축소되고 주거지는 확대되고 있어 이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재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우루시 카키에 필요한 도구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채취과정에는 낫, 주걱 그리고 다른 날카로운 금속 도구와 칼이 사용된다. 원래 이 도구는 우루시 생산지역 인근에서 칼과 농기구를 만들던 지역의 대장장이들이 제작했던 것이지만 오늘날 이 직업 역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중요문화재 보호는 향후 충분한 국산 옷 수확을 위한 적절한 생산체계 수립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 도시개발 분야, 자연환경 그리고 전통산업의 유지 등과 관련된 문제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다학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